

야권 '대통합' 물건너 가나

진보정당 소통합 급물살...민주당 '선거연대론' 확산

문재인씨 등 친노진영 원탁회의 '불씨 살리기' 주목

진보정당의 소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야권의 '큰형'적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통합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대통합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자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가 이끄는 '시민주권'이 최근 워크숍에서 야권통합 논의를 위한 원탁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대통합' 불씨 살리기에 나서 주목된다.

특히 내년 대선 야권의 '숨은 기대주'로 평가받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원탁회의에 참여키로 해 통합 논의가 새로운 흐름을 탈지 주목된다.

그동안 야권은 '야5당 대(大)통합'을 목표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중심의 '민주통합'이나 민주당과 진보신당 간 '진보통합' 등 소통합을 우선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민주당과 통합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진보통합에 기웃거리면서 '민주통합'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유 대표는 지난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주당과는 (통합이)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본다"고 말해 양당의 정서적 간극을 재

확인했다.

반면, 진보정당 통합은 이미 궤도에 올라 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오는 9월 합당에 합의한 두 당은 최근 '유시민-이정희(민노당 대표) 밀월설'이 제기돼 한때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다시 통합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 유-이 대표의 대담집 '미래의 진보' 시판을 연거푸 하는 등 민노당이

진보신당을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정희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에서 "진보대통합에 대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최고의 표현은 오는 19일 당대회에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방침의 건을 힘 있게 의결하는 것"이라고 진보정당 통합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의 야권 통합의 중심이 서지 못하는 것은 당간 확연히 다른 정당·정책뿐 아니라 군소정당이 흡수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통합보다는 선거연대가 보다 현실적이라 판단을 하는

인사들이 상당하다. '선(先) 소통합, 후(後) 대통합'의 단계적 통합론을 주장하는 정세균 최고위원도 "결국 통합이 어려워지면 선거연대로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의 한 측근은 이날 "야권 대통합의 원칙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군소정당 간 소통합 논의에 묻혀 대통합 논의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시민사회세력 등을 중심으로 대통합 논의는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민주당 대표 초청 편협포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6일 경북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내 현대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박보균)의 편협포럼에서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불출마 선언... 全大 지원 후보

친이계, 원희룡·나경원 놓고 '저울질'

한나라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는 16일 7·4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 제 역할을 못했기에 대해 무겁게 고민한 끝에 전대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영남 출신인 제가 당대표를 맡는 것보다는 수도권 출신에게 당대표를 맡기는 것이 수도권 선거에서 단 한 석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당 대표가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집전, 또는 열세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큰 수도권 출신 인사가 당 대표가 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을 놓고 당 안팎에서는 친이계가 김 전 원내대표와 원희룡 전 사무총장, 나경원 전 최고위원 등을 동시에 놓고 저울질하면서 지지 분위기가 미온적인 데 실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친박계 분위기가 썩 우호적이지

않은 걸로 알려진 집이나 선거인단이 1만명 이내에서 21만여명으로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여론조사 30% 반영' 물이 유지돼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에게 밀릴 수 있는 점을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당내 친이(친이명박)계가 지원할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됐던 김 전 원내대표가 전대 출마를 포기함에 따라 친이계 대표주자는 원희룡(서울 양천구) 전 사무총장과 나경원(서울 중구) 전 최고위원 중 한 명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경필 "등록금 45%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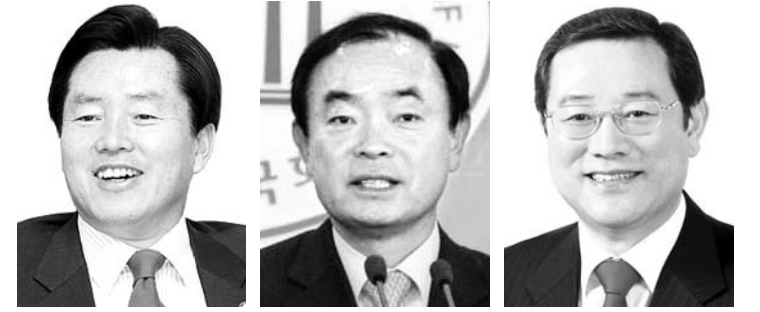
전대 출마 3대 공약 제시

한나라당의 7·4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의원은 16일 "내년부터 대학등록금의 45%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비율을 늘려 2022년에는 등록금의 75%를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학교육책임제, 고등학교 의무교육, 중·고령재교육책임제 등 '국민교육책임제' 3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대학등록금 부담 친이계 대표주자는 원희룡(서울 양천구) 전 사무총장과 나경원(서울 중구) 전 최고위원 중 한 명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부하는 손학규' 멘토들

김효석·이용섭·장병완 등 지역 국회의원들 경제정책 브레인역



김효석 의원, 장병완 의원, 이용섭 의원

김효석, 장병완, 이용섭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경제정책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민주당 등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손 대표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경제 정책을 놓고 보이지 않는 '일전'을 치렀다.

이번 기재위 활동에서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방향 전환을 주문하는 등 거시적 관점에서의 지적을 내놓는가 하면 현역의 독립성 문제와 국제세정의 세무조사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는 등 녹슬지 않은 내공을 보였다.

이 같은 배경에는 손 대표의 철저한 준비도 있지만 정치권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원 포인트 레슨'도 상당한 도움이 됐다.

김효석(경제정책 전반), 장병완(재정 분야), 이용섭 의원(세계 분야) 등은 손 대표의 '경제 공부 모임'의 주요 멘토로 매주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손 대표의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손 대표는 '경제공부 모임'에서 각종 질문 공세를 펼치는가 하면 민생 우선의 정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열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손 대표는 지난 14일 심야에도 김효석 의원을 찾아 통화

정책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손 대표의 '열공 모드'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표가 스스로 겸손히 의원들과 토론을 진행, 소문이 확대되면서 당이 점차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손 대표의 경제공부 모임은 단순한 정책 토론회에 국한되기보다는 당내의 소통 구조를 넓혀가는 의미가 더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손 대표가 점차 민주당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동음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이정현의원 4년 연속 예결위 배정

"호남 예산 확보 총력 쏟겠다"

곡성 출신으로 '호남 예산 지키기'를 자처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정현(비례·사진) 의원이 4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정됐다.

이번 예결위 구성은 18대 국회 마지막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의원은 예결위뿐만 아니라 상반기 국회에서는 문방위·여수엑스포특위·국제경기지원특위 등에서 활동하며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호남의 공적한 현안 해결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이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패배했으나 호남에서 보여준 광주 14.2%, 전남 13.4%, 전북 18.2%의 35%의 지지를 결코 잊을 수 없다"면서 "4년 연속 예결위원으로서 지역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광주의 강기정·장병완, 전남의 주승용·김영록 의원이 예결위에 소속됐고 강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국회의원 등

67명 헌정상 수상 결정

법률소비자연맹은 16일 18대 국회 출범 이후 3년간(2008년 5월29일~2011년 5월31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김영록·김효석·주승용·유운근·이낙연·최인기 의원과 비례대표의 김홍조·김유정·서종표 의원 등 67명을 헌정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13번째 '국감NGO모니터단'을 주관하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은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대정부질문 재석률, 의안표결 참여율, 법안발의 현황, 제정법 대표발의 통과건수 및 우수 국정감사위원 선정현황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 이같이 수상자를 결정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오는 22일 오후 1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열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점

포가 할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지만 글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설명회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북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준공
• 대 지 : 10980㎡, 면적 : 13937㎡
케오미일 23평형 3개동, 케오미일10평형17개동 관리동1,각각 독채형 식 주차정원비, 수려한경치,수원원,기도원적합 여유대지많은,계곡있음
• 매매가 : 13억(근저당2억9천3천) • 실투자금 : 11억1천

모텔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울산면 월산리 • 대지 : 1038㎡, 건물1095㎡
• 지하1층지상4층 객실 : 29개 엘리베이터 있음 율촌산단입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업 지정업소
• 매매가 : 10억(근저당3억6천대출생계가능) • 실투자금 : 6억4천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국아파트유후문부근 코너
• 대 지 :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원룸,빌라,점포형주택 적합
• 매매가 : 1억5천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월곡동 북광주IC 부근 생산녹지
• 대 지 : 1425㎡ 투자적합 도로있음 영산강변 경치좋은
• 매매가 : 2억2천5백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 지 :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원룸,빌라 적합
• 매매가 : 1억3천만

과수원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북상면 신진리
• 전.답 : 9150㎡ 계획관리지역 배나무 15~20년생 2000주이상
지대가 높아 과실당도 아주 좋음
• 매매가 : 1억3천5백만

토지매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공적용지및잡종지 : 8480㎡ 공장부지 : 3192㎡외 잡종지
담양육괴방면2차선 도로점 4차선도로 계획있음
• 매매가 : 6억4천만

대표전화 ☎511-6633
핸드폰 : 010-6522-7731 FAX : 512-4589

신진공인중개사 (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 산월C 교통광장 접 코너
▶ 면적: 700평, 1350평 분할가 광고하고 최고!!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원원양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 임야: 47000평, 단층건물: 250평 (5동)
단지내 도로개설됨 소나무, 산악초 재배단지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대 지 : 1500평(6차선 도로점)(700평)
▶ 자연녹지 : 700평 ▶ 일반공업지역 : 800평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
▶ 건 물 : 300평, 200평, 200평
▶ 높 이 : 8.9, 10.9m
▶ 호이스트 : 유, 유, 유
▶ 매매가격 :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남성 성기능 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같은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돕고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쿠나프리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 평소에도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3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하시면 발기가 잘됩니다.

문의 전화 010-7770-8138 주문즉시택배 무료배송
농협 302-0136-6325-61 권욱연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가능·연령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 김정수)